

‘멜라민 공포’ 과자류 이어 채소류까지…

농산물 전반 不信 확산

식약청, 중국산 채소류 등 검사 확대

해태제과 과자에 이어 롯데제과 중국 현지법인과 세계적이 제과 기업 제품에서도 연이어 멜라민이 검출되자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산 베섯과 채소류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멜라민에 대한 우려가 가공식품 뿐 아니라 농산물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 국내외 유명제과 자체 공장 제품서도=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과자는 롯데제과 칭다오 법인에서 생산된 제품과 다국적기업 네슬레와 마즈의 협력 공장 제품들이다.

특히 롯데제과와 다국적 기업들은 협력 공장에서 운영중인 자체 공장 이어서 더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를 기대한 소비자들은 “도내체 누

구를 믿어야 하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멜라민 검출량은 낮은 수준= 이번에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된 4건의 과자의 멜라민 함량은 1.78~3.36ppm으로 ‘미량’이다.

중국에서 유아 사망을 일으킨 산부(社)의 분유에서는 2천600ppm이 나왔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기준(TDI : 0.5mg/kgbw/day)에는 체중 20kg 어린이가 매일 약 10mg까지는 멜라민을 먹어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검사 대상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수입되는 베섯류와 다소비 채소류로 상추, 미나리,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배추, 호박, 파, 무, 우엉, 감자 등이 망라돼 있다.

채소에서 멜라민이 검출된다는 정보의 신뢰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며 살충제 ‘사이로마진’(cyromazine)이 자연 분해되면 멜라민이 미량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현지 시간) 멜라민 위험분석 중간 발표를 통해 “분유를 제외하고 일반 식품의 경우 2.5ppm까지는 건강상의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채소로 번지나= 이날 식약청은 베섯과 채소류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될 우려가 있다는 해외정보에 따라 수입통관단계와 유통중인 베섯·채소류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수입되는 베섯류와 다소비 채소류로 상추, 미나리,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배추, 호박, 파, 무, 우엉, 감자 등이 망라돼 있다.

채소에서 멜라민이 검출된다는 정보의 신뢰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며 살충제 ‘사이로마진’(cyromazine)이 자연 분해되면 멜라민이 미량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실명제 등 입법 관철” “사실상 사이버 계엄령”

여야 ‘최진실法’ 추진 논란

정기국회 최대 쟁점 부상

최진실씨 자살 사건 이후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모욕 및 ‘악플’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진실법’(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리당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결국 표현의 자유를 더욱 신장시킨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의를 왜곡하기 위해 네이트온을 탄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한나리당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공간이 더 이상 의성형에 숨어 비겁한 짓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 ‘MBC PD수첩’에 다우너 소동 영상만해도 PD수첩을 처음 본 사람은 많지 않아 시청률은 5%밖에 안 됐지만 거기 나온 뉴스를 인터넷에서 펴나르기 이어지면 전국민이 접하는 문제다”며 “정부 여당의 인터넷 공간 감시, 네이트온 통제하려는 시대 역행적 발상을 규탄한다”고 사이버 모욕죄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나리당 나경원 제6당조위원장은 5일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육설·비방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터넷 공간이 건강하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네이티즌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정배, 전병현, 이종걸, 서갑원, 조영택, 최문순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리당 홍준표(위쪽 가운데) 원내대표, 김영선(‘오른쪽’) 정무위원장, 윤상현(‘왼쪽’) 대변인이 5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최진실법과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정부 여당이 강행하려는 인터넷 통제방안은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과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인터넷 공간 감시, 네이트온 통제하려는 시대 역행적 발상을 규탄한다”고 사이버 모욕죄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숨은 의도는 바로 정부 비판, 반 정부적 여론 주도자들을 짚는 시간간에 신속하게 샐출하여 처벌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있다”며 “인터넷 범죄자에 대해서는 IP주소만 추적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천정배, 전병현, 이종걸, 서갑원, 조영택, 최문순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인터넷 악성 댓글을 비롯한 비도덕적 행위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강화를 통해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며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 따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제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한나리당이 최씨가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고 몰아가면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것은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진정으로 최씨를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자살방법을 도입해 모방 자살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백원우 의원 ‘멜라민 방지법’ 발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4일 중국발 멜라민 식품 파동과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식품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동일한 식품 등의 섭취로 5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

한 경우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 당사자가 되 ‘식품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멜라민 파동 이후 국회 차원의 첫번째 법안 밖의”라며 “조만간 당분간 제작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좀더 복잡화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멜라민 파동 이후 국회 차원의 첫번째 법안 밖의”라며 “조만간 당분간 제작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재철 의원 “중국산 김치 갈수록 더 불량”

지난 2005년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을 함유 파동 이후에도 중국산 김치의 품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5일 국회 보건복지기획위원회 소속 심재철(한나리당) 의원이 밝혔다.

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수입 김치의 식품 적합도 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는 88건(1천637t)으로 2005년 기생충을 김치 파동 때의 19건(279t)보다 4.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산 김치의 식품 부적합 판

정 건수는 30건(619t)에 달하고 있다.

심 의원은 “식약청에서는 2005년 기생충을 김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직접검사 방식의 관동검사와 정밀검사 비율을 줄이고 서류검사 비율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해외 중국산 수입 김치의 서류검사 비율은 절반을 넘은 5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교사 임용시험의 합격 파트너 –

<http://www.naeyoung.com>

곽내영교육학

교육학_곽내영_전공국어_최병해_국어교육론_마운용_전공수학_임대성_유아교육_임미선_초등교육_위재권_일반사회_김형수_전공미술_김성희_전공체육_김용호_전공생물(교육론)_강지숙교수팀_전공물리_장영민

얼마나 많은 2009학년도 교사임용시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0月 실전 모의고사 해설특강 4회

▶ 선착순 300명모집(조기마감 유의) ▶ 대상 : 2009학년도 임용시험 준비생 누구나 가능 (해설특강은 인터넷으로 제공되지 않음)

1, 2, 3 학년 재학생을 위한 곽내영 교육학 이론 선행학습반 특설(영상)

▶ 격월방학이 되기전에 선행학습을 시작하시면 바뀐 임용시험제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개강 : 11월 1일 (수강료 대폭

▶ 선착순 300명모집(조기마감 유의) ▶ 대상 : 2009학년도 임용시험 준비생 누구나 가능 (해설특강은 인터넷으로 제공되지 않음)

▶ 곽내영교시학원 대표 529-0090 동영상 | 에듀뷰티 www.eduvieview.net

10월 26일 시험대비

시험대비 특강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9월 16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18일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보험 재직자반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최종개단기특강

최종문제풀이특강

9월 16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18일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보험 재직자반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최종개단기특강

최종문제풀이특강

9월 16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18일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보험 재직자반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최종개단기특강

최종문제풀이특강

9월 16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18일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보험 재직자반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최종개단기특강

최종문제풀이특강

9월 16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18일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보험 재직자반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최종개단기특강

최종문제풀이특강

9월 16일 ~10월 5일

10월 6일 ~1